

# 2006년 호암상 수상자 선정

- 과학, 공학, 의학, 예술, 사회봉사 등 5개 부문

**호**암재단은 지난 4월 5일 김기문 포항공대 화학과 교수 등 5명을 제16회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6월 1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과학상을 받는 김 교수 이외에 공학상에 신강근 미시간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 의학상에 최용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면역학과 교수, 예술상에 소설가 박완서 씨, 사회봉사상에 윤 기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과학상**을 받는 김기문 교수는 초분자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쿠커비투릴 동족체와 기능성 유도체 합성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쿠커비투릴은 위아래가 열려 있는 통모양의 거대고리 화합물을 가리킨다. 김 교수는 다양한 크기와 기능을 가진 쿠커비투릴 화합물을 만들어 약물전달, 촉매, 바이오칩, 나노 소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유기분자와 금속이온을 이용, 다공성 결정물질인 'POST-1'을 개발하는 등 나노 및 바이오 분야의 원천기술 연구에 매진중이다. 서울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김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석사)을 거쳐 1986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학상**을 받는 신강근 석좌교수는 컴퓨터 공학 분야의 첨단이론과 응용기술을 선도적으로 연구해 인터넷 및 로봇 제어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실적을 냈다. 또, 연구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다양한 응용기법을 개발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그가 개발한 내장형 저전력 운영체제인 '에메랄드'는 작업 공정, 동기화, 통신 등 산업현장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혁신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의 성능을 개선한 혼잡 제어 기술인 '블루와 산업용 로봇의 생산성을 높인 알고리즘' 등을 개발했다. 신 교수는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렌셀러대 조교수를 거쳐 현재 미시간대에 재직중이다.

**의학상**을 받는 최용원 교수는 면역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인 의학자다.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종양괴사인자 계열의 사이토카인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트랜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관련 세포에서 분비된 세포간 신호전달 매개 단백질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를 통해 신 교수는 신체의 뼈가 형성되는 과정, 특히 파골 세포 분화 과정을 알아내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골다공증과 관절염, 이와 관련된 암 치료를 개발하는 데 일대 전기를 마련해 '골면역학'이란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울대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생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예술상**을 받는 박완서 씨는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1970년 장편소설 '나목'으로 데뷔한 뒤 150여편의 중·단편, 20여 권의 소설집, 16권의 장편을 발표했다. 박 씨는 6.25 전쟁과 분단 문제, 물질 중심주의와 여성 억압 등 한국인의 일상과 오늘을 비판적 시각으로 생생하게 그려내며 1980년대 이후 한국 문단의 대표 주자로 활동해 왔다. 대표작으로는 '엄마의 말뚝' '미망' '도시의 흥년'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등이 있다. 박 씨는 경기도 개풍 출신으로 1950년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전쟁으로 중퇴했다.

**사회봉사상**을 받는 윤 기 명예회장(공생복지재단)은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린다. 더욱이 대를 이은 사회봉사라는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가 각별하다. 그는 부친 윤치호 씨와 어머니 다우치 지즈코 씨가 1928년 설립한 목포공생원을 맡아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봤다. 1977년에는 공생복지재단을 설립해 목포, 제주, 서울 등 각지에서 고아, 장애인, 부랑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으며, 88년에는 일본에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을 세우기도 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호인 '호암'을 딴 이상은 학술, 예술,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한 인사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1990년에 만들어졌다. **ST**



김기문 교수



신강근 석좌교수



최용원 교수



박완서 소설가



윤 기 명예회장